

vol.58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Main



People



Research Summary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News



Event



Notice



## PEOPLE

###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와 평가인증의 연계」

- 이종태 의대협회 정책연구소장 인터뷰 -



지난 5월 19일(금),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201호에서 의평원은 의대협회와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제공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평원 기획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에서는 제58호 뉴스레터 인물로 이종태 의대협회 정책연구소장을 선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인터뷰 전문보기

## Research Summary

- 「의사양성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 리뷰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평가인증'이 힘든 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해야할까?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길 10  
연지드림빌 203호  
TEL. 02-795-1591

FAX. 02-795-1592

E-Mail. kimee@kimee.or.kr

## News

- 의학교육 평가인증
- 대외협력
- 사무국
- 의평원 연구활동



## Event&Notice

- 향후 행사·회의 일정
- 기부금 모집 안내
- 홈페이지 개편 안내



vol.58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NEWS LETTER**

- Main →
- People** →
- Research Summary →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 News →
- Event →

**PEOPLE****「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와 평가인증의 연계」****- 이종태 의대협회 정책연구소장 인터뷰 -****기획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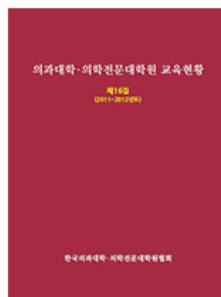
의평원 기획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에서는 제58호 뉴스레터 인물로 이종태 의대협회 정책연구소장을 선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 이종태 의대협회 정책연구소장 겸 기본의학교육 DB TFT 위원장**

**Q1. 지난 5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제공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이하 의학교육 DB)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교 교육현황, 일명 레드북을 격년으로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나

레드북은 도서로 발간하여 자료가 축적되지 않고 활용이 불편한 점 때문에 2015년 제16집 발간을 최종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체계적인 의학교육 현황 조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자료를 편리하게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웹 기반의 한국 기본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Korean Basic Medical Education Database; KBMED)를 구축을 하여 현재 각 대학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 레드북



▲ 한국 기본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KOMSIS(Korea Medical School Information System)의 경우, 2006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회장 왕규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종욱), 한국의학원(이사장 유승희) 3개 기관의 협약체결로 5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시작하였습니다. KOMSIS의 목적은 의학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함으로써 의학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생성과 활용에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특히, 대학별 의학교육 현황, 의과대학 평가인증, 교수 개인별 업적 관리 등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의학교육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DB 소유권 문제, 교수 연구업적 등 개인 정보 입력과 활용의 문제, 대학의 민감한 자료 노출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데이터 입력 등 대학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너무 앞선 정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KOMSIS 구축사업을 경험은 우리에게 DB 사업의 정착을 위한 여러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체결한 의학교육 DB 사업은 각 의과대학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의학교육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울러, 전국 의과대학이 정보 공유를 통해 교육과 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DB 사업들에 비해 전국 의과대학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대학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Q2. 이번 의학교육 DB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각 대학에서 방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엑셀 양식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고, DB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대학원 현황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졸업 후 의학교육 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 DB를 바탕으로 AAMC의 A Snapshot of Medical Student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2020)와 한국의학교육학회의 백서와 같이 5년 또는 10년 주기의 교육현황집 발간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학교육 DB를 평가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대학이 자체평가를 할 때 자료의 확보와 분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대협회와 의평원 간 협력체계 구축하여, 각 대학에서 입력해야 할 데이터 범위와 항목을 선정하고 작성기준을 평가인증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양적 데이터를 기반한 항목은 시각화가 가능하여 대학에서 활용이 수월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Q3. 두 기관의 협약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의학교육 DB를 평가인증에 활용한다면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학교육 평가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KOMSIS 사업 당시, 유사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기관들과 협력이 부족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학교육 DB가 평가인증에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기준을 반영한 자료의 생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기관은 의학교육 DB와 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연계, 활용과 관련한 데이터 입력 중복성 최소화, 데이터의 표준화, 최신성, 지속성, 신뢰성, 접근성과 활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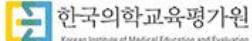
▲ 의대협회-의평원,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제공과 이용에 관한 협약식

#### Q4. 의과대학 DB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대학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기관의 협력을 토대로 의학교육 DB의 완전성,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평가인증에도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의학교육 DB를 구축하면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학별 자료의 직관적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연도별 변화를 추적하고 요약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에서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원으로 역할이 미흡하였습니다. 넷째, 의과대학의 DB 구축에 대한 참여와 DB 활용이 높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과대학 DB를 구축하는 것이 의학교육의 주체인 각 대학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두 기관을 믿고,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자료 입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인터뷰 장면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길 10  
연지드림빌 203호

TEL 02-795-1591

FAX. 02-795-1592

E-Mail. [kimee@kimee.or.kr](mailto:kimee@kimee.or.kr)

- 인터뷰이: (우하단) 이종태 의대협회 정책연구소장
- 인터뷰어: 기획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좌상단) 채수진 팀장, (좌하단) 오희진 위원

vol.58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Main



People



Research Summary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News



Event



### RESEARCH SUMMARY

#### 「의사양성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 리뷰

기획위원회 연구개발팀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인간 의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방점을 둔 의학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기본의학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편해왔다. 기본의학교육과정 개편은 의학과 4년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예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의예과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거론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의예과와 의학과 분리를 없애고 통합 6년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연구개발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지원으로 의사양성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인제의대 노혜린 교수)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의예과 역사와 현황, 외국대학 사례, 기본의학교육을 위한 교육 원리와 원칙 등을 검토하고 향후 통합 6년제 기본의학교육과정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01.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예과 과정이 편성된 것은 1924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학제에 예과 2년을 포함하여 6년제로 운영한 것이 최초이다. 1934년 2년제 예과규정이 3년제로 개정되면서 전체 과정은 7년제로 바뀌었고 이러한 학제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미군정기에 의과대학의 경우 조선교육심의위원회가 결의하고 학무국에 건의한 예과 2년을 포함한 6년제로 수정 없이 실행되었다. 이후 의학전문대학원체제가 병존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의과대학은 6년제로 지속되어왔다.

02.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최근 개설된 약학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있으며, 예과를 따로 분리하여 두고 있지 않다.

03. 20세기 후반 문헌들의 결과를 보면 당시 의예과 교육과정의 큰 문제점이 의예과가 자연과학대학의 운영에 맡겨 있으면서 자연과학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수업을 담당한 교수들의 관심이 적고 교수법의 질은 낮았던 것이었다. 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문헌들에서는 자연과학 중심 교육과정보다는 획일화된 틀, 연계성 부족, 학습환경과 자원 미비, 교육과정 개선 의지 부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여겼으며, 수업의 낮은 질은 교수학습환경 등 시스템 문제로 보았다.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대두된 문제점은 학생의 부적절한 학습태도와 부적응과 정체성 혼란이었으며, 2010년 이후의 문헌에서는 주요 문제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04. 의예과 교육과정 개선방안으로는 2000년 이전에는 선진국 벤치마킹과 대학 간 교류, 자연과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의과대학 참여가 주로 언급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교육과정 정비와 의학교육과정과의 연계, 교수학습환경 개선, 엄격한 학생평가와 적절한 학생지원시스템 등이 강조되었다. 2015년 이후 가장 강조되고 있는 개선방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강화, 성과바탕교육, 의예과 제도개선, 학생의 균형적 발달 등이었다.

05. 선행연구에서 교과목 편성 조정, 자연과학 이외 과정 확대,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의학과와 연계한 과정 개설, 소그룹토의수업 확대, 교수법 개선, 학생평가방법 개선, 학생지원 시스템 확립, 입학선발방법 개선, 학습동기부여와 정체성 형성, 그리고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등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06. 현재 의예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과목 편성을 조정하여 자연과학 이외 과정을 확대하였고, 의학과와 연계한 과정이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었다. 반면 아직도 전공선택과목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거나, 100학점이 넘는 학점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학도 있었다.

07. 외국의 기본의학교육 교육과정에는 의예과 과정이 없었다. 대부분 6년의 과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5년의 수업연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학제나 수업연한, 교육과정 구조가 다양하였다. 입학 직후인 1학년 때부터 의학교육을 바로 시작하고 있었으며 기초의학 외에도 임상의학과 인문사회의학 또한 1학년 때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환자-사회-의사 관련 내용은 전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1학년 때부터 환자와 대면하도록 하였고 대부분의 대학이 최소 3년 이상의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학생 맞춤형 심화과정을 1년 정도로 두고 있었다. 교육과정 편성은 3년의 임상전교육과 3년의 임상교육(영국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런던 대학, 에든버러 대학,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 홍콩 종문 대학), 2년의 임상전교육과 3년 임상교육 및 1년 인턴십(독일 뮌헨 대학), 2년의 임상전교육과 4년의 임상교육(호주 플린더스 대학,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홍콩 대학), 2년의 기초의학과 2년의 임상의학 및 2년의 임상실습(오사카의대)으로 분류할 수 있다.

08. 외국 의과대학의 경우, 입학 전 선수 과목으로 생물과 화학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입학

선발을 위한 면접과 포트폴리오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연령 제한을 두는 학교도 있었다. 예방접종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대학이 많았는데, 교육과정 중 특정 시술이나 진료 참관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 신체장애를 입학 전에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09. 의학 교육과정과 관련한 현대학습이론으로 자기조절학습, 경험학습, 상황학습, 전환학습, 사회인지이론 등이 있다. 자기조절학습과 경험학습은 의예과 교육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학생들의 불성실한 학습태도, 자립성 부족, 학습동기 부족, 성인으로서 불균형 발달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황학습과 전환학습 이론은 학생들의 태도와 미발달과 더불어 전문직 정체성 부족을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사회인지이론은 선택과목 부족, 경직된 교육과정 틀, 학제 분리, 의예과 성적의 미반영, 대규모 강의 중심 교수학습환경 등 환경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0. 교육과정 설계 원리로는 나선형 교육과정, SPICES 모형, 통합교육과정, 성과와 역량바탕 교육 등이 있다. 외국의대 사례는 현대 학습이론과 교육과정 설계 원리를 잘 따르고 있었다. 교육과정이 통합되어 수평적 수직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중심, 문제중심, 통합교육, 지역사회교육, 선택과 표준화, 체계적 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11. 연구진이 제안하는 통합 6년 기본의학교육과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6년 중 총 3년은 임상전교육(preclinical), 후반 3년은 임상교육(clinical)의 크게 2개 시기로 나눈다. 2) 기본의학교육과정은 통합연계형으로 구성하되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교육범위와 심도를 나선형으로 배치한다. 3) 전문직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교육은 전 학년에 걸쳐 학년별 시기별 학습의 내용과 심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4) 학생중심교육을 위해 전 학년에 걸쳐 선택과정을 두고 학생이 학습동기와 진로에 맞게 학습한다. 이 모델은 조기환자노출, 선택교육, 전문직 정체성 형성, 장기통합임상실습, 학생자율설계과정 등을 특징으로 하며, 교육학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외국 의과대학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의예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전략이다.

12. 새로운 통합 6년 교육과정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의예과 제도와 수업연한 제한, 선수과목이 없는 입학요건, 의사국가시험 대비로 인한 4학년 2학기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은 고등교육법과 정부 및 관련기관 정책이 바뀌어야 해결된다. 교육자원 지원 부족, 획일적인 교육과정 편성 정책은 대학 본부가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학의 정책을 개선해야 해결될 수 있다.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인프라 부족, 환자 참여 부족, 의대 교수의 진료업무 과중 등은 교육병원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교육병원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13. 병원의 보직자와 의대교수, 의과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교육과정 개선에 저항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틀을 변화시키는 것에도 저항이 크지만, 전문직 정체성 교육에 대한

이 연구 결과는 정부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개선을 제안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공공의 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의예과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선 조치, 고등교육법과 교육부의 입학전형 간소화 정책 변화, 입학요건에 생물과 화학 선수과목 지정, 의사국가시험제도 개선,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 보완과 실습면허제도 마련 등 그동안 쌓여있던 의학교육 제도와 정책 문제를 개선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법과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므로, 일개 교수나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 의사, 대학의 대표 기관과 의학교육 전문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길 10  
연지드림빌 203호

TEL. 02-795-1591

FAX. 02-795-1592

E-Mail. kimee@kimee.or.kr



- **연구명:** 의사양성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2018.10.15.~2019.8.15.
- **연구책임자:** 노혜린 교수(인제의대)
- **연구발주기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좌측의 연구보고서 표지를 클릭하시면 연구  
보고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l.58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Main



People



Research Summary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News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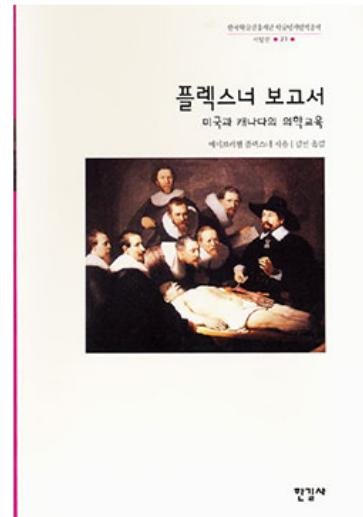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평가인증' 이 힘든 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해야할까?

박연철 인증기준위원(연세원주의대)

의과대학 평가인증은 평가인증 관계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평가를 준비하는 피평가대학은 2년간 혹은 4년간 교육을 위해 노력했던 사항들을 평가보고서에 담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들인다.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약 3일간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피평가대학이 오랜 기간 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오죽했으면 인증 피로(accreditation fatigue)라는 말이 새로 생길 정도이니 말이다. 준비하는 입장도 힘들고 평가하는 입장도 힘든 평가인증제도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불만 섞인 질문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질문일 것이다.

도대체 평가인증은 어떻게 시작하였고, 누가 만들었을까? 그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910년 미국 의학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에이브러햄 플렉스너(Abraham Flexner)는 1908년 '미국의 대학: 비평'이라는 책을 1908년 출판한 후 카네기 재단의 위임을 받아 미국과 캐나다의 의과대학들을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플렉스너 보고서(Flexner Report)를 출간하였다. 플렉스너보고서는 평가인증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 미국 의학교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83년에 JAMA에 실린 의학교육 인증의 역사와 관련된 논문에서도 실제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impact)을 미친 사건을 플렉스너 보고서라고 하였다. 플렉스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의과대학이 종합대학의 일부가 되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대학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의과대학이 병원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 임상 교육과 연구가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었다.



▲ 플렉스너 보고서

플렉스너 보고서로 나타난 변화는 우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학교가 도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플렉스너 보고서가 나온 당시 1910년 미국의 의과대학 수가 155개였으나 1922년 81개, 1929년에는 76개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의학교육에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1913년부터 1928년까지 15년 동안 록펠러재단에서 5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의학교육 개선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생 선발 기준을 객관화하고, 고등학교 또는 그 이하 교육수준의 의과대학 입학조건을 점차 강화시켜 실제 의학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플렉스너 보고서를 통해 의과대학 교육이 변화하자 미국에서는 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1942년에는 의학교육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전담 기구인 의학교육평가인증원 LCME(the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을 창립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와 한국의학교육학회 등이 논의하여 1997년부터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듬해인 1998년 7월에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ABMEK)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KIMEE)의 바탕이 되었다.

그렇다면 평가인증을 하는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목적은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의 이념을 바탕으로, 의료 관련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인력의 질적 보장을 위한 사업의 수행'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사업으로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인증이 정말로 유효한 평가인가? 평가인증 결과가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우선 평가의 유효성은 여러가지 타당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998년 Academic medicine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44개의 LCME 인증기준에 대해 1659명의 의학교육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내용타당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이 3.94에서 4.87로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우리나라로 2000년에 41개 의과대학 662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87개 인증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이 3.8에서 4.49로 나타났다. 비록 내용타당도에 대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평가인증기준이 여러 전문가에 의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평가인증 결과가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의사국가고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평가인증 결과가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과 인증유예나 불인증 등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의 의사국가고시 성적을 비교를 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다. 현재 미국,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모든 의과대학이 평가인증을 통과를 한 상황이다. 평가인증을 시행하지 않은 나라와 시행한 나라의 국가간 비교를 해 볼 수도 있지만 나라별 그리고 학교별로 표준화된 입학사정기준, 성적처리기준 등이 다르기에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평가인증이 학생의 수행능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있다. 2012년 Medical Education에 멕시코와 필리핀 의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실렸다.

학생들의 성과는 USMLE 성적을 기준으로 확인하였고, 실제 평가인증을 받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유의미한 성적 차이가 USMLE 전체 step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2013년에 카리브 해안의 의과대학과 그 외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번에 USMLE step 2를 합격하는 비율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와 받지 않은 학교 간에 합격률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평가인증결과는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과 연결되어 결국 학생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물론 평가인증은 번거롭고 힘들다. 하지만 평가인증 결과로 인한 변화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평가결과로 나타나는 학교의 변화와 학생들의 성과를 보면 또 그만큼 보람 찬 일이 평가인증이라는 생각이 듈다. 의학교육의 질적향상과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갖춘 미래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더나아가 실제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킨다는 자부심을 가진다면 비록 힘든 일이지만 충분히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질의 · 응답 게시판 바로가기](#)

[ASK2019 질의 · 응답 사례 보러가기](#)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길 10  
연지드림빌 203호

TEL. 02-795-1591

FAX. 02-795-1592

E-Mail. [kimee@kimee.or.kr](mailto:kimee@kimee.or.kr)

vol.58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Main	→
People	→
Research Summary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News	→
Event	→
Notice	→

### NEWS

#### 의학교육 평가인증

##### ○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대학은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 등 8개 대학으로, 현재 대학별로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학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1일까지 보고서가 접수되면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간평가 대상 대학은 가천, 건양, 경북, 단국, 대구가톨릭, 연세, 제주, 충남, 충북 등 9개 대학이며, 2023년 8월 31일까지 중간평가연구보고서가 접수되면 인증관리위원회에서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일정 및 향후계획

일정	내용
2023. 1. 16.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 안내
2023. 1. 16 ~ 2. 28.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2023. 3. 1. ~ 7. 31.	대학별 자체평가 연구 수행
2023. 3. 24.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워크숍 개최
2023. 5. 13.	학생보고서 설명회 개최
2023. 7. 31.	자체평가연구보고서, 학생보고서 접수
2023. 8.	방문평가단 구성 및 워크숍 개최
2023. 8. ~ 9.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
2023. 9. ~ 10.	방문평가

### ◦ 2023년도 중간평가 일정 및 향후계획

일정	내용
2023. 1. 16.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 대상 안내
2023. 1. 16. ~ 2. 28.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 신청서 접수
2023. 3. 1. ~ 8. 31.	대학별 중간평가 연구 수행
2023. 3. 24.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워크숍 개최
2023. 8. 31.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접수
2023. 9. ~ 10.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
2023. 10. ~ 11.	방문평가(필요 시)
2023. 12.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 승인
2023. 12.	중간평가 결과 안내

※ 상기 계획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2023년 6월 23일(금) 10:00~17:00, 프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 호텔 서대문룸에서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이희제 인증기준위원의 사회와 안덕선 의평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황지영 인증제도위원장의 방문평가단 가이드에 대한 발표와 인증기준위원회 전문위원들의 ASK2019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오후에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실제 사례를 통한 평가방법을 Team Based Learning(TBL) 형식으로 진행하여 워크숍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금번 워크숍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기초 교육으로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교수 중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관심 있으며 향후 방문평가단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분 교수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 23개 대학에서 37명의 교수진이 참석하고 과정을 수료하여 향후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 ○ 의평원-의대협회,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제공 관련 업무 협약 체결



의평원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와 2023년 5월 19일(금) 10:00,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201호에서 의대협회가 주관하는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DB) 사업에 대한 구축, 정보 제공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의대협회가 운영하는 의학교육 DB와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연계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협력하고 DB 구축 원칙과 역할을 합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협약 내용은 대학의 데이터 입력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의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과 연계한 DB 구축, 자료의 신뢰성 검증과 평가인증 활용, DB 정보제공과 이용 등이다. 양 기관은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 ○ 제55차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참석

보건의료계별 6개 분야 평가인증기관 연합회인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보건의료계별 평가인증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중요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제55 차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가 2023년 5월 30일(화) 17:00, 시청 달개비에서 개최되었으며, 김미영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을 신임 연합회장으로 선출하고 각 평가원 현안과 향후 추진업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사무국

### ○ 2023년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학동워크숍 개최



의평원은 산하 위원회 간 협력을 도모하고 의평원 주요 사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2023년 4월 28일(금)~29일(토),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 서울호텔 1층 남대문룸에서 「2023년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학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한희철 이사장의 환영사와 안덕선 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양은배 수석부원장의 2022년도 의평원 활동 소개가 있었고, 이어서 ASK2019 메타평가 연구 결과, ASK2019 ver 2.0(안) 발표가 있었으며, 의평원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1일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워크숍 2일차에는 ASK2019 ver 2.0(안) 발표에 대한 컨센서스 미팅을 진행하고, 조별 주제 토의 후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제39차 의학교육학술대회 기관주관 프로그램 개최



의평원은 제39차 의학교육학술대회 기간 중인 2023년 5월 19일(금) 15:30~17:00,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202호에서 'ASK2019의학교육 평가인증 메타평가'를 주제로 기관주관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윤태영 의학교육인증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메타평가 연구팀 이승희 연구책임자가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메타평가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메타평가 연구팀 임만섭 연구원이 메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을 발표하였고, 참석자들과 함께 종합토의를 진행하였다.

## ○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공동 주최 세션 개최



의평원은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인 2022년 6월 16일(금) 10:50~12:20, 더케이호텔 서울 3층 거문고홀에서 '기본의학교육에서 졸업 후 의학교육의로의 Transition : 인턴 수련교육'을 주제로 기관 공동주최 세션을 개최하였다. 한재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사전문역량인증단장과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 세션에서는 김영민 졸업후교육위원의 인턴 수련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선우 졸업후교육위원장의 인턴 수련교육의 질 관리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남우동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외협력위원 겸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위원장, 조승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2023 대학의학회 학술대회는 하이브리드로 개최되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다양한 참석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 의평원 연구활동

### ○ 2023년도 교육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 보장과 평가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2023년도 교육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사업은 1) 의학교육의 질 관리 및 평가역량 강화, 2) 평가인증 전산화 구축 기초작업, 3) 국제교류 및 평가인증 홍보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2개월이다.

###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의평원은 2023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로 '의사 의료윤리 연수교육 발전 방안 연구'를 신진호 평생교육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11일(목) 11:00, 온라인으로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 약 1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vol.58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 Main →
- People →
- Research Summary →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 News →
- Event** →
- Notice →

### EVENT

#### 행사 소식

##### ◦ 2023년도 방문평가단 워크숍 개최 예정

의평원은 금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방문평가를 위해 2023년 8월 18일(금) 10:00,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2023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방문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 회의 소식

##### ◦ 제7-003차 실행위원회 개최 예정

의평원은 제7-003차 실행위원회를 2023년 7월 7일(금) 07:30, 시청 달개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회무 및 재무사항, 의평원 규정 일부개정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 제32차 이사회 개최 예정

의평원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제32차 정기 이사회를 2023년 7월 21일(금) 07:00,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회무사항 보고 및 의평원 정관 일부개정 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vol.58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 NEWS LETTER

- Main ➔
- People ➔
- Research Summary ➔
-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tandard ➔
- News ➔
- Event ➔
- Notice ➔

### NOTICE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부금 모집 안내

#####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기다립니다.

의평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모든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납입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의평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쓰이며, 기부금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의평원 홈페이지 ([www.kimee.or.kr](http://www.kimee.or.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법인 및 개인 누구나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기부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의평원 사무국(02-795-1591, [kimee@kimee.or.kr](mailto:kimee@kimee.or.kr))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학교육 발전에 뜻이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615-000310-01-166,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부금 온라인 약정하기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 개편 안내

##### 의평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정보 제공의 편의성을 높이고 홈페이지 이용의 수월성을 도모하고자 의평원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홈페이지 이용 중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의평원 사무국(02-795-1591, [kimee@kimee.or.kr](mailto:kimee@kimee.or.kr))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795-1591

FAX. 02-795-1592

E-Mail. kimee@kimee.or.kr

의평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COPYRIGHT 2021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ALL RIGHTS RESERVED.